

GALERIE EVA PRESENHUBER

보도자료

Martin Boyce 마틴 보이스

Celestial Snowdrops

전시기간: 2024년 10월 25일 - 11월 30일

오프닝 리셉션: 10월 25일 (금) 오후 5 - 8시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 x P21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74

운영시간: 화요일 - 금요일: 11 am - 6 pm, 토요일: 12 - 6 pm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Galerie Eva Presenhuber)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아티스트 마틴 보이스(Martin Boyce)의 여섯 번째 개인전 <Celestial Snowdrops>를 서울의 전시 공간인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 x P21에서 개최한다. 에바 프레젠후버 대표와 P21 최수연 대표의 두 번째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마틴 보이스의 국내 두 번째 개인전이기도 하다.

마틴 보이스는 미니멀리즘 양식을 사용해 일상의 형태를 정제된 조각적 배열로 변형한다. 그의 작품은 문학적 상상력과 구조적 실용성을 예술적 정밀함과 결합해, 우리 주변에서 종종 간과되는 패턴과 구조에 주목한다. 이번 <Celestial Snowdrops> 전시에서 보이스는 실내외 풍경, 빛(과 빛의 부재), 목판화, 길거리 포스터, 별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병치해 깊이를 표현한다.

이번 전시는 천정에 설치된 모빌 작업인 'The Weight of the Tides' (2024)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작가는 자신의 모빌 작품을 꿈과 기억에 비유하는데, 그 속에서 분절된 요소들은 온전한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애쓰지만 불안정하게 계속 흔들린다. 보이스의 조각 작업은 두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조각품을 대화 형태로 배치하여 대형 몰입형 설치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체 풍경을 단일 형태로 압축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달에 비친 수양버들의 실루엣이 전체 풍경을 완성한다. 물감 한 방울이 눈물을 의미하듯, 길게 늘어진 쇠사슬이 정지된 시간과 애수를 불러일으킨다. 산업용 재료로 구성된 작품으로 섬세하게 채색된 천공형 '달'과 버드나무 형태가 서로를 의지하며 매달려 있다. 지면 가까이 늘어진 기다란 가지들은 사슬로 표현되었으며 중력의 존재를 부각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애수를 자아낸다.

이 한밤의 애수는 세 점의 목판 패널로 이어진다. 각 목판에 담긴 Oceans(바다), Falling(낙하), Always(항상)이라는 단어는 흡사 세 단어로 이루어진 시와 같다. 세 목판은 2023년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의 비엔나 공간에서 열린 보이스의 개인전 <The Stars Are Out>에서 선보인 혼합매체 작품 일곱 점에 등장하는 판화 제작에 사용된 바 있으며, 그중 하나인 'Celestial Snowdrops'(2023)라는 작품명에서 이번 전시의 제목을 가져왔다. 이 판화들은 합판에 구멍을 뚫어 만든 '별'을 특징으로 하는데, 잉크를 묻혀 인쇄했을 때 합판 위에 난 구멍들이 별이 빛나는 하늘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작품 내에 주조된 청동 조명 스위치는 별을 켜고 끄는 행위를 위트있게 표현한다. 목판과 판화의 병치는 미니멀리즘 회화에 대한 보이스의 탐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작업 과정의 흔적을 보여준다. 한편 'Oceans', 'Falling', 'Always' 작품에 포함된 목판은 소멸된 사진 네거티브처럼 더 이상 인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명의 부재는 2015년작 <Dead Star (yellow wall lamp)>에도 등장한다. 천공형 강철, 황동, 청동으로 만든 벽 램프는 기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빛을 내지 못한다. 램프 홀더는 청동으로 주조돼,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 '죽은 별'과 같은 순수 조형 작품으로 구현됐다.

1967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해밀턴에서 탄생한 마틴 보이스는 현재 글래스고를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다. 영국 게이츠헤드의 발틱 현대미술센터에서 선보인 설치작품 <Do Words Have Voices>으로 2011년 터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09년 제 53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스코틀랜드 대표작가로 참가했다. 에든버러 프루트마켓 갤러리(2024), 베를린 하우스브룩 재단(2021), 벨기에 겐트 CONVENT Space for Contemporary Art (2019), 영국 뷰트섬 마운트 스투어트(2019), 중국 청두 A4 미술관(2018), 런던 테이트 브리튼(2016), 스위스 바젤 현대미술관(2015), 미국 로드아일랜드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2015), 영국 글래스고 트램웨이(2012), 서울 모던 인스티튜트, 아틀리에 에르메스(2007),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2002)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GALERIE EVA PRESENHUBER

아티스트 정보 문의

onlinesales@presenhuber.com

언론 이미지 및 정보 문의

jjieunseo.cni@gmail.com (서지은 디렉터, CNI Communications) / press@presenhuber.com